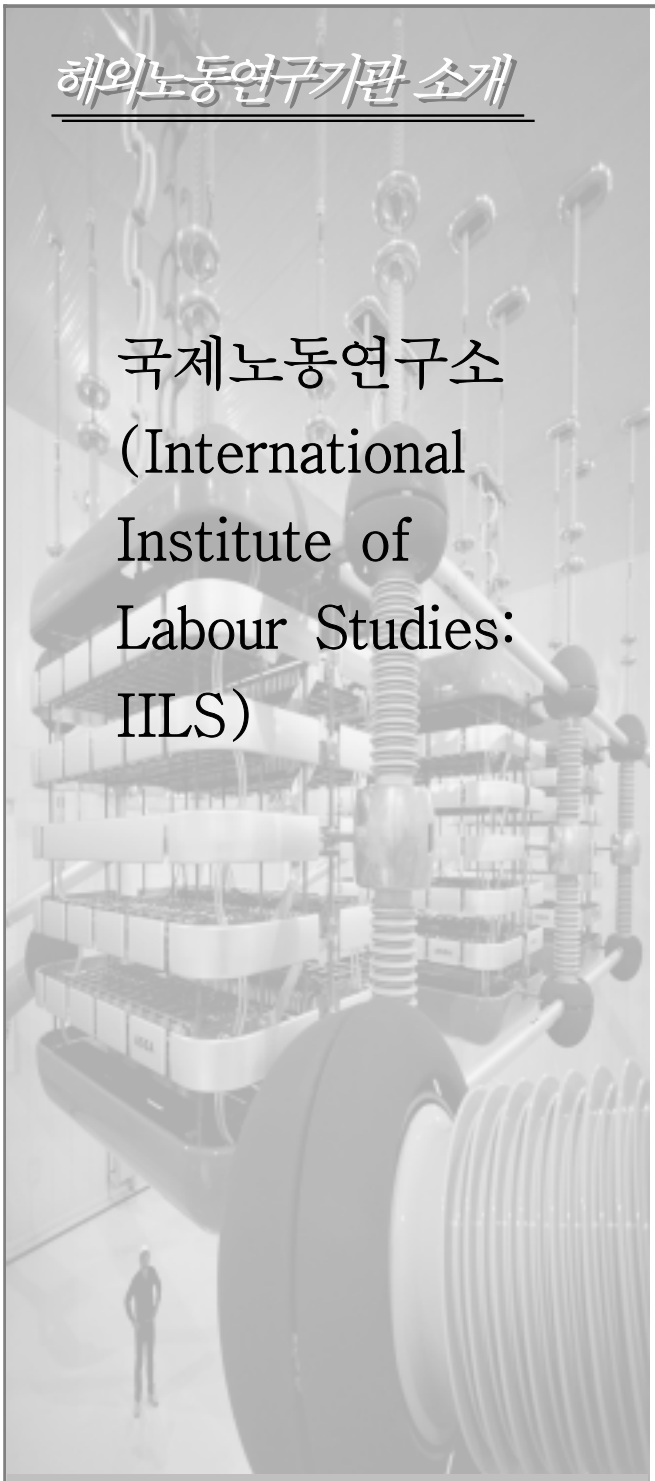

국제노동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of Labour Studies: IILS)

<편집자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은 200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IRA 2003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의 사무국으로 2001년부터 이를 준비해 오고 있다. 회의기간 중 특별 세션으로 '세계노동포럼'이 열리며, 세계 주요 노동관련 연구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지난 호부터 '세계노동포럼'에 참여 의사를 밝힌 주요 해외연구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 연구소의 목적과 활동

IILS는 1960년 ILO(국제노동기구)의 자발적 기구로 ILO와 ILO헌장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 노·사·정의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 가지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 노사정이 학계를 비롯한 다른 정책 결정자들간 격의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세계포럼'의 역할을 하며,
- 학계와 노사정 활동가들을 연계해서 ILO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이슈들을 연구하고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연구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들, 노동행정기구가 경제사회 분야를 연구,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연구소 구성 및 운영

연구소의 이사진들은 ILO 이사회에서 임명하는데 ILO 이사회를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연구소 이사회의 의장은 ILO 사무총장인 후앙 소마비아이며, 연구소의 원장은 ILO 사무총장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피에르 라비엑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연구진들이 프로젝트별로 세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류하며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구소는 ILO와 기부금, 각국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 노사단체들로부터의 기금, 출판 수익으로 운영된다.

활동 내용

연구원에서 현재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들은 1999년 ILO 사무총장이 국제노동회의에서 주창한 '양호한 일자리(decent work)'라는 개념 추진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사회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호한 일자리' 개념을 분석한 후 정책 마련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연구 활동

궁극적으로 '양호한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의 목표는 일자리에서의 기본권과 고용 및 소득 기회와 경제개발을 연계하는 국제적 또 국가적 정책 마련으로, 2002년 말까지는 '양호한 일자리' 지표 마련, 계량분석모델 개발, 이론적 및 실증적 배경에 대한 문헌 검토가 이루어졌고, 2003년부터는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해 각국별 사례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ILO의 '양호한 일자리'를 위한 4가지 전략적 목표(노동의 근본적인 원칙과 권리 증진, 고용과 소득기회 증진, 사회적 보호 증진, 사회적 대화 증진)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 목표들의 발전 단계들과 국가별 이행 수준의 차이가 이 관계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밖에는 좋은 일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일자리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단체들과 협력하는 시민단체의 역할, 또는 각종 규제의 역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양호한 일자리 관련 연구

① 양호한 일자리 지표: 일자리에서의 기본권의 관련 수치 구축 및 편집하고 새로운 고용보호 측정법을 개발하고 양적 통계지표들을 만들어냈다.

② 계량분석: 우선 고안된 새로운 지표를 활용해 세계화,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상대적 무역 우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FDI와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국가일수록 FDI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으며(보고서: Fundamental rights at work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상대적 무역 이익에 대한 연구는 현재 수행중에 있고, 향후 구조적 배경, 특히 노동시장 규제가 고용과 실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③ 정책 마련: 좋은 일자리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양호한 일자리 목표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효율적으로 디자인되고 이행될 수 있는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정책들이 정책과정에서 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한다. 이 연구는 좋은 일자리 정책의 실현에 필수적인 방법들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노사정 당사자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 마련에 필수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우선 이론 검토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유럽 선진국의 노사정 기구들이 시민단체와 어떻게 협동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했고,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아동노동, 소득 및 고용창출, 의료보건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분석했다. 또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시민단체의 역할 분석을 위해 스웨

덴의 여성시민단체를 사례분석해서, 이들이 노사정 시스템 내부에서 작용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재구성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에 대한 사례분석도 이루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여성의 노동권 보호의 측면에서 국가와 노조의 역할이 스웨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의 통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 법적 보호수준과 경제적 경쟁력 유지와 고용창출 간의 최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의 노동입법과 노동법원,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

이주 노동자는 2004년 ILO총회의 의제로 노동 이주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체제(sustainable migration regime) 마련 연구를 시행중이다. 송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이해를 반영하며, 협조적인 방식으로 숙련노동자(PTKs,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기술직, 혈연자들)의 이주와 단기 이주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 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소는 ILO헌장을 따르는 학습과 지식 내용을 공유하여, ILO 직원들과 학계, 그리고 노동과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외부의 활동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앙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다양한 사회정책 포럼과 패널 토론, 쌍방향의 온라인 회담을 통해 새로 나타나는 사회 이슈들에 대한 세계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과정의 수업과 세미나 연구방문을 통해 ILO헌장이 사회정책 연구분석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기별로 중요한 사회정책에 관한 공공 강의들이 열린다.

그밖에 연구소에서는 매년 제네바에 있는 ILO본부에서 각 국가의 사회정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순환 진행되는 좋은 일자리 증진을 위한 노동사회정책에 대한 국제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노동분야 학자들에게 교환학자로 ILO의 관심사를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제공하며,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교환학생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LO의 노벨상 수상(1969년)을 기념해서 199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세계 유수 대학을 방문해서 사회정책 강연을 벌이기도 한다.